

친일파 6명 재산 10만평 조사

조사위, '을사오적' '정미칠적' 땅 우선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을사오적'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6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62필지, 34만1천897m²(10만3천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8일 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친일과 2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0필지(2만2천372m²)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3차례로 나뉘어 조사개시 대상으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과 이재극, 민영희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검찰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토지 12필지(6천900m²), 조사위의 공식 출범일인 8월18일에는 2차로 3명의 토지 40필지(31만2천625m²)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각각 내렸다.

전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적위원(9명)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재산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빠르면 10월에도 첫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친일재산의 첫 환수결정'이

는 중복되기 때문에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조사위는 전했다.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 개시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다', '친일의 대가로 획득한 토지가 아니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 원위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완의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은 "파견공무원 10여명을 제외한 인력채용과 부서배치를 대부분 끝낸 상황"이라며 "친일파의 재산이라는 의심이 들면 바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업도시 '농지전용' 쉬워진다

특별법 개정... 절차 간소화

정부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농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0일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박huso 농림부 장관은 지난 7월말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농림부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해당 특별법과 관련해 건교부와 공

식적으로 주고받은 문서가 없다"고 밝힌 답변과는 상반된 것으로, 부처 간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건교부가 제출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추진중인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사업자가 당국으로부터 개발계획만 승인받으면 농지를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국내 농지는 182만ha로 15년전인 1990년 210만9천ha에 비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을·일 만평

- 김종우



이런 코미디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농어업법인 35% '적자' 허덕

통계청, 2,180곳 조사

절반이상 영업손실 1억 안팎

전국 농어업법인의 5분의 1이 농도 전남에 집중된 가운데 농어업법인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약간 개선된 경영 성과를 보였지만 34.8%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많은업체들이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1억원의 영업손실은 4천 200만원, 순이익은 4천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사별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8.6%에 달하는 780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전체의 절반이 1천91개는 영업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는 등 대다수 회사들이 수익성 부진을 겪었다. 반면 44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221개 업체는 1억~5억원미만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2005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농어업법인 중 결산서를 작성하는 2

천18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작년 경영실적을 보면 이를 법인은 지난해 모두 3조7천256억원의 매출을 올려 916억원의 영업이익과 1천4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17억1천만원, 영업이익은 4천 200만원, 순이익은 4천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사별로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38.6%에 달하는 780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전체의 절반이 1천91개는 영업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는 등 대다수 회사들이 수익성 부진을 겪었다. 반면 44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221개 업체는 1억~5억원미만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100가구 중 전남 24·광주 16가구 최저주거 기준 미달

건교부, 작년 주택수요조사

지난 해 전남지역에서 최저 주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는 18만2천200가구로 5년 전에 비해 25% 줄었지만 여전히 100가구 가운데 24가구가 최저주거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7년6천300가구로 5년 전에 비해 1.5% 감소했으며, 100가구 가운데 16가구가 최저수준의 생활

을 하고 있는 상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 연구원이 전국의 표본주택 1만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 주택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55만7천가구로 5년 전에 비해 25% 줄었지만 전체 가구(1천560만가구)의 16%는 여전히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0년 334만가구(전체 1천431만가구)보다 79만가구가 감

소한 것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3만가구에서 79만가구로, 지방은 222만 가구에서 177만가구로 각각 줄었다.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서울(37만 가구)과 경기(30만6천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는 7개 대도시 중 5번째, 전남은 도단위 중 4번째로 많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저주거기준=가구원수 대비 방구성, 총 주거면적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3인 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침실 2개·부엌을 공간으로 주거면적 8.8평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국제회의 총회 폐회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총회 폐회식에서 공성진, 박영선 의원이 서울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동해방사능 공동조사' 합의 日 '분쟁 유발' 전략 말려드나

일본은 동해상 방사능 오염조사와 관련, 한국측이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사전통보 후 단독조사'를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일본 정부의 공선(公船)을 나포하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굵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양오염 조사활동의 일환인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일본과의 과도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일 공동조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외교통신부는 8일 양측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구 소련의 핵폐기물 투기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동해상의 우리측과 일본측 근해 양측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국과 일본이 당연히 같은 권리を持つ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 해역에서 환경방사능 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은 굵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신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구 소련의 핵폐기물 투기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동해상의 우리측과 일본측 근해 양측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미국무부 힐 차관보 방한

6자회담 재개·북핵 논의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1일 방한한다.

이날 오후 서울에 도착하는 힐 차관보는 유명한 외교부 제1차관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잇따라 예방, 만 1년째 표류하고 있는 6자회담 재개 방안과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힐 차관보는 이어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 회동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과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 등을 둘러싼 제반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힐 차관보는 또 주한 미대사관을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고 12일 오전 위상tier으로 돌아간다.

/연합뉴스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1일부터 오는 20일 까지 해외투자 유치 및 전략사업 추진 자료수집을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UAE 등 유럽 6개국을 방문한다.

박 지사는 이를 지역 3개 기업과 투자상담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관광·레저시설과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선진 농촌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지원센터' 13일 개소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獨·佛 등 6개국 방문

여성과학기술